

“우주·스마트 수산으로 ‘인구 10만’ 달성 박차”

병오년 새해설계



공영민 고흥군수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불의 기운과 말의 역동성을 품고, 지난 시간 다져온 변화의 기반 위에서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이라는 비전을

전국 유일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속도 에너지 연금·복지 ‘정주 여건’ 완성 휴양밸리지 등 관광 인프라 구축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겠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1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이라는 폐거를 이루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다”면서 “올해는 우주·드론·스마트팜 등 미래 전략산업을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어내고, 군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공군수는 올해 군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미

래 전략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복지 실현을 꿇았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단연 수산업 분야이다. 고흥군은 지난해 1천900억원 규모의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5년간 고흥만 일대 85만평(504㏊) 부지에 AI 기반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양식 산업의 표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고흥의 미래인 ‘우주·드론·스마트팜’ 등 3대 전략산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민간 발사장 1단계 준공을 연말까지 마쳐 우주 강국의 진조 기지로서 입지를 굳힌다.

또한 13만2천200여㎡(약 4만평) 규모의 드론

특화산업단지를 완공해 기업 입주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198만평·231만여㎡ 규모의 대규모 스마트 농수축산 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스마트팜 확산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3대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고흥읍·봉래면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 사업을 본격화하고, 광주·고흥 고속도로와 우주선철도 건설 계획을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전남령 만원주택 등 주거 시설을 대폭 확충해 청년과 귀농·귀촌인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

‘고흥 관광 1천만 시대’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2천억원 규모의 휴양밸리지와 해양예술랜드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천경자 화백 기념관 건립 등 문화 예술 콘텐츠를 강화해 머무르는 관광지로 체질을 개선한다.

또 ‘에너지 연금’ 실현을 위해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과 태양광 발전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신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추진, 4인 가구 기준 월 60만원의 소득을 창출해 인구 유입의 기폭제로 삼는다.

이밖에 군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 정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천200여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국 최초 노인 전담 주치의제를 강화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금까지 고흥의 변화를 위해 군민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주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1천 400여 공직자와 함께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으로 ‘군민이 행복한 고흥’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주성학 기자

“성공 농사 교육으로”…보성군, 영농 설계 지원

벼·감자 등 기술 전수 안전 교육

이수 시 보험료 최대 5% 할인도

보성군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영농 교육’에 돌입한다.

11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해 농사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돋는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농업 정책에 농업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마련됐다. 과정은 ▲영농반 ▲지역특화반 등 총 4개 과정으로, 15회에 걸쳐 읍·면 순회 및 집합 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먼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영농반’은 읍·면을 순회하며 보성 농업의 근간인 ‘벼·재배’ 핵심 기술을 전수한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요령과 함께, 농업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 교육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이어 20일까지 열리는 ‘지역특화반’에서는 보



보성군이 올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농 교육’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해 교육을 듣고 있는 주민들 모습.

〈보성군 제공〉

성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고소득 효자 작목인 감자와 쭈파 재배 노하우를 공유한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투입돼 생육 단계별 관리법을 전수,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농작업 안전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은 ▲농업인 안전보험 5% ▲농기계 종합보험 3%(최대 3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군은 차세대 농업인 맞춤형 포털인

‘농업e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영농 정보를 제공, 농업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숙희 보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첫 단추”라며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용 기술과 달라지는 농업 정책을 꼼꼼히 챙겨 농업인들의 든든한 성공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장성군, 80세 이상 ‘택시 바우처’ 지원

연간 14만4천원…카드 지급

장성군은 11일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돋기 위해 관내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14만4천원의 택시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택시 바우처’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택시 이용은 장성 관내로 제한된다.

특히 군은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조례 개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4월부터 혜택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병원 진료나 장보기 등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정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성군은 최근 레저문화센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곡성군 제공〉

“지역경제 활력”…곡성군 기본소득 비전 선포

2027년까지 月 15만원 지급

소비 촉진 선순환 구축 목표

곡성군은 “최근 레저문화센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고 11일 밝혔다.

비전 선포식은 주민 삶의 안전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농촌의 현실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비전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곡성군은 오는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군민 1

인당 매달 15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대와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창출하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지역 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곡성=김영필 기자〉

담양군, 생명 나눔 실천 ‘사랑의 헌혈’

14·16일 공직자·군민 대상

담양군은 11일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의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오는 14일과 16일 이틀간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체 헌혈은 14일 담양군청 주차장과 보건소 천변 주차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같은날 순회 차량이 오전에는 담양 경찰서를, 오후에는 대덕보건지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10일은 혜림종합복지관에서 헌혈 행사

가 진행되며, 헌혈에 참여한 공직자와 군민에게는 헌혈증서와 함께 1만원 상당의 담양사랑상 품권, 대한적십자사 기념품이 제공된다. 참여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군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협력해 연 4회 정기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헌혈증을 기부하는 ‘희망 나눔 실천 운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담양군민 중 수혈을 위해 헌혈증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의약관리팀(061-380-3974)으로 신청하면 1인당 연 1회, 최대 20kg까지 기부받을 수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여수 시전동 지사협, 제6기 위원 27명 위촉

정기회의 개최…10개 사업 추진

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내용으로는 ▲1인 가구 정서적 지지·지원 대상 위한 ‘혼자여도 오늘은 주인공’ ▲사랑의 김치나눔 ▲아동들이 행복한 시전동 ▲어르신 관절튼튼 건강교실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임 선출된 송재열 민간위원장은 “우리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펴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온기 가득한 시전동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현기 시전동장은 “제6기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민·관이 협력해 지역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순천시, 외식업 ‘경영 혁신’ 지원 참가자 모집

16일까지 1대1 맞춤형 컨설팅 제공

순천시가 지역 외식업소의 해묵은 고민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관내 외식업소의 경영 안정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2026년 경영 혁신 외식업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들이 주로 지적하는 ▲메뉴 구성의 비효율성 ▲가격 대비 낮은 만족도 ▲불균형한 서비스 품질 등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전문 컨설팅 기관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사전 현황을 조사하고, 업주

의 요구 사항을 정밀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각 업소의 특성과 여건에 최적화된 1대1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게 된다.

시는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 종료 후에도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 개선안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y slim 95@koreakr)로 출하하거나, 순천시 관광과 미식 관광팀(061-749-4276)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외식업주가 평소 느끼던 경영상의 어려움을 전문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미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